

제3장 3 차 산업

1. 상업

1) 시장

(1) 조선후기 보령지역의 시장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장시(향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부·군·현의 소재지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지방장시(場市)가 생겨났고, 그밖에도 해로와 하천 수운과 도로의 접점 등 교통수단의 결절점이나 물산의 산지에 시장이 입지했다.

이러한 장시는 다수의 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 요충이라는 세 가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 시기 장시는 전국적으로 1천여 기(基) 형성되었고 이 장시들은 상호 연계되면서 구역별로 장시망을 이루었다.

조선후기 전국 천여 개의 지방장시 즉, 5일장의 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 지방장시에서 상권을 주도하였던 것이 보부상들이다. 이들 보부상들은 보부상단을 조직하여 하나의 장시망을 돌며 지방상업을 발달시켰다.

현재의 보령지방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단은 보령현 지역을 관할하던 <元洪州等六郡商務社>와 남포현 지역을 관할하던 <亭産八區商務社>가 있었다.

개항 이후 확대 발전되어 오던 전국적 보부상 조직이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붕괴되었다.

그렇지만 보령현 지역을 관할하던 육군상무사는 ‘계’ 조직을 중심으로 그들 특유의 조직력과 협동정신, 규율 그리고 해산물 등의 상품유통 지배, 민주적 방식에 의한 보부상단 운영에 바탕을 둔 상호신뢰 관계가 조직체의 자생력을 갖게 하여 일제시대에도 더욱 번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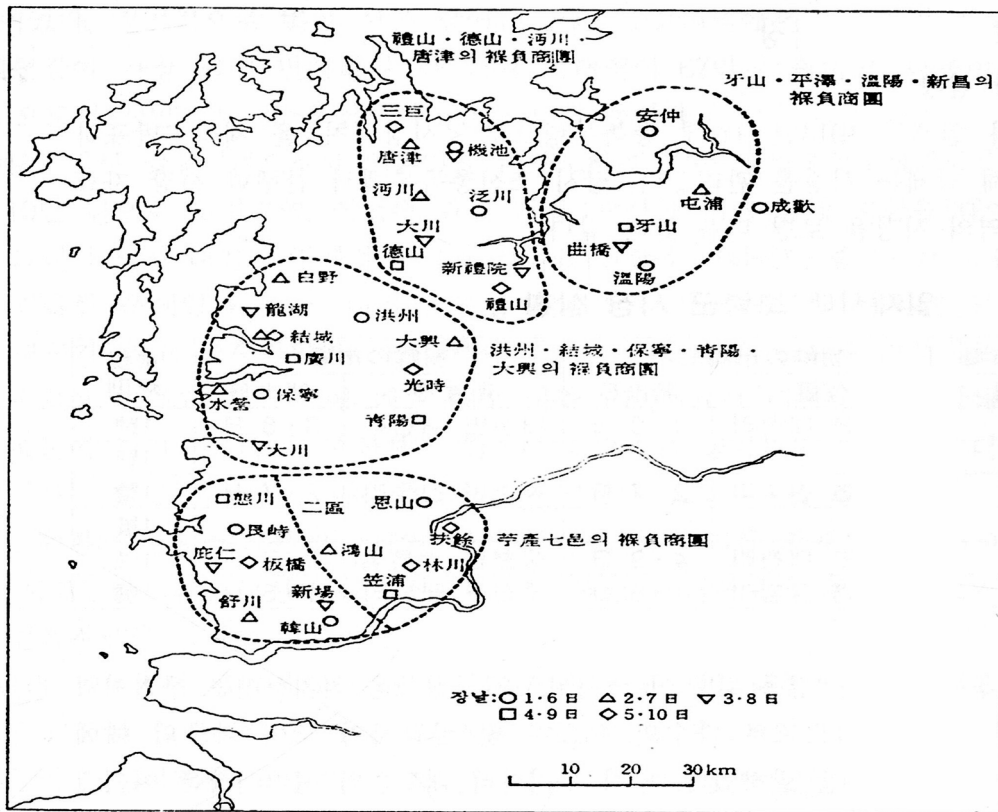
○ 원홍주등6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

1851년 4월 예산 대흥 사람인 임인손(林仁孫)이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아 홍주, 결성, 보령, 청양, 대흥 5읍의 상계(商契)를 창설하고, 임방(任房)을 설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보부상단을 조직하고 이 지역 시장의 관리와 상품 유통의 독점적 관장을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원홍주등육군상무사우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의 홍주, 오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의 6郡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商圈을 형성하여 결성된 보부상단이다.

1907년 보령이 따로 분리,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도 했으나 1915년에 와서 다시 합병하여 육군상무사로 이어오게 된 것이다.

1900년(明治 33)의 일본 <領事館報告>에도 홍주, 청양 등지에 개시일마다 보부상들이 200~300명씩 모여들어 매매를 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20세기 이후에도 번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군상무사는 각 시장에 임소(任所)를 설치하고 시장을 관리했다.

19세기말 충청도지역의 보부상조직의 지역적 범위



육군상무사 관할 구역내의 임소가 설치된 시장

홍주 관할 구역 장시	洪州, 廣川, 結城, 葛山, 龍湖, 大橋, 白野, 神城, 驛峙, 玉溪, 甕岩, 星湖, 南塘, 遠川
청양 관할 구역 장시	靑陽, 化城, 雲谷, 斜陽
대흥 관할 구역 장시	大興, 光時
보령 관할 구역 장시	邑市(주포), 靑所, 平村(竹林), 鰲川, 大川, 鹿島

○ 저산팔구상무사(荳産八區商務社)

모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저산팔구 보부상들의 유통 시장권은 한산 읍내장을 기점으로 서천·비인·남포·은산·홍산·정산·부여·임천을 서로 하나의 시장권으로 연결했다. 이 보부상단은 1845년 6월에 공인을 받아서 크게 활동했으며, 보령 지역의 남포대천장(웅천)과 간치장이 이 보부상단의 관할이었다. 196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멸되었다.

(2) 일제시대 보령지역의 시장

① 보령지역 시장 상황

일제시대에 들어와 일제는 1914년 9월에 총독부령으로 <시장규칙>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규칙에 의해 일제는 시장을 관리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시장 자료집에 나타난 보령지역의 시장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제시대 보령군 시장 상황

市場名	朝鮮の市場	朝鮮の市場經濟		朝鮮の市場		市場規則
	開市日	位置	開市日	所在地	開市日	
大川市	?	대천면 대천리	3·8 日	대천면 대천리	3·8 日	1號
保寧市	?					1號
靑所市	?	청소면 진죽리	2·7 日	청소면 진죽리	2·7 日	1號
鰲川市	?					1號
熊川市	?	웅천면 대천리	4·9 日	웅천면 大昌里	2·7 日	1號
良峙市	?	주산면 금암리	1·6 日	주산면 금암리	1·6 日	1號

여기에서 제1호 시장이라 함은 ‘장옥(場屋)이 설치된, 또는 장옥을 설치하려는 구획지역(일정지역)에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 및 공급자가 모여 화물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장소’인 재래시장을 말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기시장은 여기에 해당된다.

② 대천장의 성장

1914년 군통폐합에 의해서 보령, 오천, 남포의 3군이 병합되어 보령군이 되었다. 대천에 보령군청을 두게 됨과 동시에 대천은 충남 연안의 중심지를 이루는 중요한 어항이었던 관계로 더욱 번영하게 되었다. 1921년에 발간된 <忠南産業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대천시장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대천 지방은 군산항의 상영역(商領域)에 있고 일부는 인천과의 상거래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천이나 군산 등지로부터 상품유입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안의 어획물이나 기타 수산물도 군산, 강경, 광천, 인천 등지로 수송 판매하며 성어기에는 일본에서 고기잡이배가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 일본수산물주식회사, 임겸조(林兼組), 산신조(山神調) 등에 판매 계약을 하여 팔았으며 일부는 상어, 도미, 농어 등을 구입하여 얼려서 시모노세키 등지에 팔았다.

당시 보령군의 수출입은 대천항과 오천항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바 대천의 연 수출액은 748,000원, 수입액은 338,000원이며 오천항은 수출액이 15만 원이고 수입액은 9만 5천 원이었다. 정기적으로 場이 서는 날에는 군내 주요지역에서 상거래가 행해졌는데 당시 대천장이 가장 크게 번성하여 한 해의 거래액이 67만여 원이고, 다음이 간치장(良峙場)으로서 24만 5천 원, 웅천장이 5만 4천 원 등이다.

대천에는 당시 금융기관으로서 일본인들이 주도하여 만든 충남흥업주식회사가 있어서 자본금 10만 원으로 토지경영, 어업에 관한 기업, 수산물 매매 등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천의 경제적 발달과 상업권 신장을 위하여는 좀 더 큰 금융기관의 설치가 긴급한 문제였다. 또한 대천은 충남 서해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항구였으나 항구가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간조시에는 항구 일대가 간석지로 바뀌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고 간조 시에 배를 항구 바깥 10여 리(현 대천항)에 정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당시 주민들은 수산물을 집적하여 오지에 공급하고 대천장이 더욱 번영하기 위해서는 항구 시설의 건설이 필요함을 충남도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전충환(全忠丸)이라는 기계배가 대천-군산-인천 등지를 왕래 출입하면서 교역을 했으며, 서해안의 많은 도서에서 해산물이 운반되어 대천포구에 풀어짐으로써 대천은 해산물 집적지로서 성시를 이루었다.

1930년대 장항에서 천안에 이르는 도로와 철도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대천에서 청양 등지로의 교통이 열리면서 벽지에 해산물을 공급하고, 청양지역의 농산물이 모이도록 하는 기능이 대천시장에 주어지면서 대천시장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 1941년 文定昌의 <朝鮮의市場>에도 대천시장(大川市場)은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에 3일과 8일에 개시되는

큰 5일장임을 기록하고 있다.

대천시장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관청의 청사는 없었지만 항포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해산물의 집적 유통과 개항 이후의 해로를 통한 인천항 등지로부터의 신상품의 유입, 일제시대의 장항선 철도의 개설, 군 폐합에 의한 보령군 청사의 입지 그리고 보부상들의 활동이 어우러져 발달된 시장이었다.

(3) 해방 이후 보령지역의 시장

해방 직후의 혼란한 정치와 경제는 정기시장의 감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의 거래기능도 크게 약화시켜 놓았다.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이 본격화된 1954년부터 1961년까지의 경제복구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61년 8월 31일에는 시장법(법률 제704호)의 새로운 공포로 정기시장은 상공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게 되었으며, 그 운영은 읍·면사무소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하였다. 농촌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고도 경제성장이 진행된 1960년대 동안에는 농촌 정기시장의 수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농업 및 농촌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공업 및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 이후부터는 정기시장의 수가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① 번창한 시장

가. 대천장

예부터 내려오는 정기시장이 3·8일에 개시되고 있다. 정기시장의 위치는 일제시대 중반까지는 구시였으나 철도개통 이후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신시 쪽으로 이동하여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상권을 쥐게 되었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생활필수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싸전이였다. 따라서 대천시장의 싸전 이동상황을 살펴보면 대천 정기시장이 열리는 장소가 어떻게 이동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의 대천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싸전은 현재 대우장 여관 근처에 위치해 있다가 제일시장, 경남여관, 역전 파출소 뒤, 현대상가, 문화원 뒤, 현재의 곡물시장의 순서로 이동하였다.

현재의 5일 시장은 현대증권 뒤에 서는데 장날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상인과 주민들이 모여든다. 요즘 상인들은 트럭을 소유하여 트럭에 상품과 간단한 판매장비를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트럭을 이용하기 때문에 홍성장(1·6日), 대천장(3·8日), 광천장(4·9日), 예산장(5·10日)을 주로 다니며 웅천(2·7日), 청양(2·7日) 등의 시장은 일부만이 다닌다. 대개의 경우 5일 중 4일은 장을 보고 1일은 물건을 구입하는 날로 삼는다.

이들은 팔다 남은 물건은 큰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다음 장날 팔기도 한다. 5일 시장을 보는 상인들의 주거주지는 광천이다. 이것은 광천이 과거 충남 서남부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까닭에 기인하는 것 같다.

5일 정기시장을 보는 상인들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상인으로 옛 보부상의 후예로 자처한다. 이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보부상 조직인 <元洪州等六郡商務社>가 운영되고 있다.



대천시장모습(2008년 7월)

정기시장이 서는 날이면 현대증권 뒤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대천시장 전역에 많은 주민이 모여들어 물건을 팔고 산다. 요즘은 교통의 발달로 상권이 넓어져 보령시내는 물론이고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일부 지역 주민들까지 대천시장을 본다.

나. 웅천장

본래 남포현의 중심 시장으로 최초의 시장은 지금의 웅천읍 대천리에 위치해 있었다. 대천리에 있던 시장을 ‘한내장’이라고 부르고 ‘大川場’ 또는 ‘藍浦大川場’이라고 표기하였는데 현재의 웅천장은 대천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웅천장으로 부른다. 웅천장은 웅천면 사무소의 이전(1928)과 함께 1928년 7월 현재의 대창리로 이전하였다. 대천리의 시장은 터가 좁고 당시 일본인 소유의 토지여서 토지 사용료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창리로 이전한 웅천장은 면사무소와 장항선 웅천역의 설치와 어우러지면서 최근까지 크게 발전해 왔다.

최근 웅천장은 과거 장옥들을 상설 점포화 해서 상설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농촌 서비스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도 보령지역내에서 대천장과 함께 5일장다운 5일장이 서는 곳이다. 특히 1995년 3월 2일 웅천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웅천시장모습(2008년 6월)

그러나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와 큰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옹천장도 점차 대천장의 상권에 의해 위축되어 가고 있다.

② 명맥을 유지해 가는 시장

가. 오천장

충청수영 당시 시장은 충청수영성 남문 안쪽 산기슭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6·25 무렵까지 장이 서지 않고 대부분 청소장, 대천장, 광천장을 보았다. 6·25이후 면에서 시장을 세워 행정선으로 각 섬을 돌며 사람과 물건을 무료로 실어와서 장을 보게 한 다음 다시 실어다 주기도 하였다. 장 개설을 하면서 난장도 열고, 소규모의 가축장(주로 돼지였고, 소는 거의 거래가 없었음)도 있었다. 그러나 각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대천여항을 중심으로 왕래하고, 대천-오천간 시내버스의 운행이 좋아지면서 오천장의 쇠퇴를 가져왔다. 지금은 1·6일에 형제철물점 앞 공터에 장이 선다.

나. 주산장

간치장(良峙場) 또는 간재장이라고도 한다. 1일과 6일에 시장이 열린다. 주산은 조선 시대 주요도로인 이인도가 지나 남전역(현 주산면 창암리)이 있던 곳으로 「葦産八邑」 중 남포현의 대표적인 모시장으로 모시의 거래가 활발하였는데 ‘白葦’는 주산, 세모시는 한산’이라 불릴 정도로 백저(白葦)가 중심인 큰 모시전이 섰었다. 여러 동의 장육이 있었고, 모시전 옆에는 간치천에 인접해 모시 표백전이 있었다. 지금은 5일장이 개시되기는 하나 주변 농촌의 농산품과 몇 명의 생선장수가 전부이며 요즈음 정기시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옷과 잡화 행상도 찾아보기 힘들다.

③ 소멸된 시장

가. 청라장

청라장(1·6日)은 1960년대 초 개시하였으며, 1970년대 광산이 한창일 때는 청라 인구가 만 명 정도일 때도 있었다. 이때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대천, 광천 일대의 행상들까지도 왕래하였다. 최초의 장은 지금의 면사무소 옆(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에 3,000여 m² 이상의 넓은 장소를 차지하면서 크게 섰다. 그러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청라 주민이 크게 감소되어, 청라장의 규모도 줄어들게 되자 현재의 시장(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지금은 장육도 없어지고 옛 장터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민민체육공원을 만들어 민민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소장

청소장(2·7日)은 平村장, 파리재장으로 부른다. 일제시대에서 1970년대까지 번성했던 시장이다. 최초의 시장은 진죽리 남쪽 끝(21호 국도의 서쪽 돌뺨 마을 앞), 진죽천 옆에 있었고, 일제시대 경남철도(현 장항선)의 가설과 더불어 지서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청소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었다. 당시 오천, 주포 주민들도 청소장을 보았으며, 난장이 서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현재의 위치인 역 앞으로 옮기면서 최대 성시를 맞았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천, 광천으로 상권이 옮겨가고, 지금은 장옥도 남아있지 않으며 <청소종합식품>이라는 상설 점포만이 옛 장터거리를 지키고 있을 뿐 5일장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다. 주포장

주포는 과거 보령현의 중심지로, 1일과 6일에 장이 섰었다. 중리 마을 서북쪽 해산루 앞에서 보령양조장에 이르는 주변에 장터가 있었다. 1957년에는 ‘보령리 마을 번영회’에서 500평을 구입하여 장옥 2동을 세우고 시장을 개설하였다. 시장 개설 기념으로 난장을 5일간이나 벌였다고 한다. 근래 자동차 교통의 발달과 상설시장의 발달로 장꾼이 줄어들어 1970년대에 완전히 폐장되었고, 장터 땅도 개인에게 매각되었다. 장이 서는 날은 5·10日이었다.

라. 남포장

남포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경(金永完 면장 재직시: 1952.5~1954.6) 새 중심지에 논을 매입하여 장터를 확보하고 장옥 2채를 지어 남포장(1·6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4~5년 간신히 이어지다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마. 우시장

해방 후에 가축시장은 더욱 성시를 이루었다. 보령지역에서는 대천 가축시장이 가장 컸고 웅천 가축시장이 그 다음이었다.

대천의 우시장은 갈머리, 지금의 한국통신 맞은편에 위치하여 일반시장과 같이 3·8日에 장이 섰다. 성시를 이루었던 1970년대에는 한 장에 거래되었던 소가 500두 정도였다. 또한 1년에 한번 ‘한우 품평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선별된 소가 도 대회는 물론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면서 ‘보령의 한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장날에는 보령 한우를 사려고 전국, 특히 경인지방에서 상인들이 대천 우시장으로 몰렸다.

웅천장이 성시를 이룬 이유 중 하나도 우시장에 있다. 한때 ‘웅천은 쇠진, 주산은 모시전’이라는 말이 날 정도로 큰 가축시장이 있었다. 이곳 우시장은 주변의 비인, 판교, 미산 등지에서 왕래하였다. 웅천장은 우시장이 축소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초 가축시장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법정출장두수’를 넘기지 못하던 웅천 우시장을 없애고 대천 우시장을 남포 북정자로 이전하였다. 북정자로 이전한 후 품평회를 갖기도 했지만, 일반시장과 너무 동떨어지고, 출하되는 소가 적어 쇠퇴하였다.

1984년 도축장을 하나로 묶으려는 정부방침인 ‘권역화사업’으로 홍성, 보령, 서산, 당진, 청양의 우시장은 홍성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면서 보령지역 우시장은 없어지고 홍성 우시장이 유명해지게 된다. 지금은 홍성, 서산, 당진, 청양, 보령의 비육우들은 홍성장과 광천장에 집산되어 경인 지방 등지로 공급된다.

참고자료 :

백미자, 2000, 보령지역 시장의 형성과 변화,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상설시장

① 상설시장과 현황

교통의 발달은 소비자가 다양한 종류의 생활필수품을 접할 수 있는 도시로 모이게 되고, 도시의 형성은 거주민이 장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통의 중심지이며 관청의 소재지였던 대천동에 상설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웅천읍에도 웅천역 앞 웅천장터에 1993년 상가를 건축하여 상설 시장이 개설되었다.

상설시장은 교통이 발달되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형성이 가속화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령시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대천동에 제일 먼저 형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시장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고 규모도 컸었으나 2006년 10월 27일 과거의 상설시장, 자유시장, 중부시장 등 3개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한내시장상인회 창립총회를 갖고 박종갑 상설시장 조합장을 상인회장으로 선출하여 동년 11월에 통합을



한내시장상인회 창립총회

함으로써 중대형 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상설시장의 현황과 위치는 아래 표 및 위치도면과 같으며 대천동 지역 내 상설시장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기존 시가지의 분산과 주요 기관의 외곽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상가 형성으로 상권이 분산되고 열악한 시장 환경 등 경쟁력이 약화되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웅천상설시장의 경우도 시설이 열악하고 상권 내 인구의 감소로 문을 닫는 점포가 많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천동 상설시장 위치도



상설시장 현황

시장명	소재지	면적(m ²)		점포	조합원	주요상품
		대지면적	매장면적			
계	5개소	30,680	12,288	582	495	
웅천	대창리 432-9	6,752	1,455	43	26	식품, 의류, 생선
한내시장	대천동 197-1	8,906	4,026	295	300	의류, 식품, 생선
중양	대천동 331-7외	9,574	3,700	130	67	의류, 잡화, 젓갈
동부	대천동 618-64	3,216	1,922	61	49	그릇, 채소, 방앗간
현대상가	대천동 618-69 동대동 983-54	2,232	1,184	53	53	과일, 그릇, 잡화

자료 : 보령시청 기업사랑과

② 상설시장의 규약과 조직

상설시장별로 정관을 정하여 점포를 경영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자율적인 모임을 결성, 상인 공동의 이익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 중앙시장 상인회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와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중앙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 65명으로 결성 운영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상거래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서비스 향상과 시장 안의 시설 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회원 간의 친목과 복리사업 등을 한다. 임원은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감사, 이사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한내시장 상인회

2006년 11월에 상설, 중부, 자유시장 상인회를 통합하여 30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으며 기존 권역별로 3개 지회(상설 중부 자유)를 둘 수 있다.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등은 중앙상인회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3인, 사무국장,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하고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다. 웅천시장 번영회

웅천읍민과 웅천시장 상권에 있는 주변 주민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갈수록 침체되는 웅천시장 상권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며 상인과 읍민과의 유대 강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웅천읍 관내에서 상업을 하는 업주를 회원으로 2001년 3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창립하였다.

현재 회원은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2인, 총무 재무 각 1인, 감사 2인, 운영위원 10인, 고문 약간인(현재 3인)으로 구성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라. 동부시장 및 현대상가 시장

동부시장과 현대상가 시장은 별도의 규약이나 정관은 없으나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장(회장)과 총무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상설시장 임원현황

(2008년)

시 장 명		직 위	성 명	상 호 명	비 고
응 천		대 표	이 창 우	다운식당(임대)	
		번영회장	남 상 윤	응천 BYC대리점	
한 내	상 인 회	회 장	박 종 갑	은누리 상회	
	상설지회	지회장	박 종 갑	은누리 상회	
		총 무	신 기 웅	풍 미 수 산	
	자유지회	지회장	김 규 태	미 림 사	
	중부지회	지회장	신 영 석	유 성 양 품	
중 앙		조합장	강 신 우	동부상회(젓갈)	
		총 무	김 학 동	대광상회	
동 부		조합장	이 종 만	한내 방앗간	
		총 무	이 원 학	성수방앗간	
현대상가		대 표	박 총 일	형제청과	

자료 : 시청 기업사랑과

(5)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각 기관의 외곽 이전, 대천역과 버스종합터미널 이전,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형성 등으로 기존 대천동 일원의 시가지가 외곽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됨으로써 상권의 분산이 가속화되고 중·대형 마트의 출현으로 상설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은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보령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보령 상권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2002년부터 연차별로 상설시장

주변의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비가림 시설, 간판 및 좌판, 소방 설비 등 시설 개선을 하여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다. 또한 대남초등학교 앞에서 구시로 이어지는 도로도 금강제화 앞에서부터 4차선으로 확장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혼잡함을 줄였다.

중앙시장의 입구가 막혀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편하고 환경이 불량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6월 동원장 등 건물을 철거하여 환경을 밝게 조성함은 물론 철거된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이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공간은 상인들의 민속장터 공간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 개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재래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한 가족 한 시장 친구 만들기’ 등 시청 공무원들부터 솔선 실천하여 점차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서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대책을 펴나가고 있다.



웅천시장 활성화 행사(2008. 6)



상설시장 정비한 모습



정비전 모습



정비된 모습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현황

년도별	사 업 별	사 업 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2002	중앙 도로개설	120m	1,200	
	상설 비가림	150m	250	
2003	중앙, 상설 비가림	425m	700	
	중앙 공중화장실, 번영회사무실		100	
	간판 및 좌판설치(4개시장)	100개	50	
2004	중앙, 상설 소방설비	1,150m	400	
2005	상설 하수도정비	127m	100	
2006	자유, 중부 비가림	417	1,100	
2007	한내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40	
	중부 하수도	180m	40	
2008	동부 시설개선	비가림	580	
	중앙 지장물 정비	건물철거	3,000	
	현대상가시장 비가림	1식	200	
	중앙 시설개선(간판,방송)		240	

자료 : 시청 기업사랑과

② 시장 상인들의 활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환경 조성, 질 좋은 상품, 상도덕 등 상인들의 자율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상인회별로 친절한 서비스, 판매촉진 이벤트 행사 개최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여 재래시장을 홍보하기도 한다.

(6) 시장의 다변화

① 시장의 다변화 원인

도로 교통의 발달과 컴퓨터 등 정보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을 챙기게 되어 식생활도 웰빙을 추구하게 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관공서와 300명 이상 사업체가 주 5일제 근무를 본격 실시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가와 레저에 대한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 관광의 발달을 촉진하고, 또한 아파트단지 조성과 관공서의 이전, 교통체계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많아지는 등 생활 여건의 변화는 시장과 상권 변화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각종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특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② 상권의 분산

집단 취락의 형성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주변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게 한다. 1989년 명천주공 1차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명천동과 동대동, 죽정동, 궁촌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1995년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었다.

또한 옛 대천시 청사가 1994년 10월 15일 이전되고 1995년 통합보령시가 출범하여 현 청사(명천동 269-4번지)로 이전 개칭하였다.

앞서 보령세무서와 한전,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도 시내 외곽인 성주산 기슭인 명천동에 개칭하였으며 또한 장항선 직선화 개량에 따라 내항동 일원에 역세권을 개발하여 대천역과 버스종합터미널을 2007년도 이전하고 2008년



2008년도 시가지 모습

도에는 보령우체국이 역세권인 대천역 앞으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동대동 구획정리지구, 내항동의 역세권지구, 죽정동 일원으로 아파트 단지, 숙박 및 상가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대형마트 출현

경제성장은 국민생활 정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적인 여유와 여가문화의 발달은 바로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게 되어 사람들은 한 곳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구매하고 남는 시간을 다른 생업에 종사하거나 운동이나 여가를 즐기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됐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퇴근 후 시장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가공된 식료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주말에 1주일 사용할 생필품을 한곳에서 일괄 구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식료품과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모두 취급하는 중형마트가 대천지역 곳곳에 생겨났고 2006년에는 대기업에서 각종 생필품은 물론 가전제품, 의류, 식품까지 취급하는 삼성홈플러스가 동대동에 개점하였으며 역세권지역에는 E-마트가 2008년 10월 개점하였다.

④ 수산물 특화시장

보령시는 서해 바다와 접한 78개의 유·무인 도서와 천수만 주변에 천혜의 어장이 형성되어 계절별로 특성있는 많은 바닷물고기가 잡힌다. 따라서 대천항, 오천항, 무창포

항을 중심으로 많은 해산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른 해산물 소비 시장이 필요함에 따라 대천과 무창포해수욕장은 물론 항구 주변과 시내 곳곳에 횃집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외지의 관광객들이 신선한 해물을 사기 위해 항구를 자주 찾게 되어 항구 주변에 일명 ‘다라장사’의 소규모 활어 시장이 형성되고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특화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령시에서는 수산물 특화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다.

가. 대천항 수산시장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출하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수산물판매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령시 신후동 2240번지, 대천항 매립지 내에 11,175㎡의 부지를 마련하였다.

2005년 3월 29일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보령 수협과 신후수협이 공동투자를 하고 입점자당 3천만 원씩 특별출자를 하여 건축연면적 4,889㎡,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2006년 말 준공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매장은 1층에 활어점포 71개와 건어점포 9개, 2층에 시식코너 10개 점포 등 총 90개로써 1층 활어 매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횃감용 싱싱한 활어를 사가지고 2층 시식코너(식당)에서 회와 식사를 하게 된다.



대천항 수산시장전경

시식코너에서는 회를 떠주고 양념과 야채 등을 제공하고 식사준비를 해주며 kg 단위로 서비스료를 받고 주류와 음료 및 공기밥 등은 실비다.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싼값에 제공하고 건어점포에서 선물도 구입할 수 있어 주말마다 외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나. 무창포항의 수산물센터와 오천항의 수산물 판매장

무창포해수욕장에 접해 있는 무창포항은 주변 산과 바다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해수욕장에서 인근 석대도까지 월1~2회 약 3~5일간 바다가 갈라지는 일명 ‘모세의 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 관광 잠재력이 높다. 시에서는 2008년부터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1,468㎡, 3층 규모의 콘크리트건물로 수산물센터를 건립하여 2008년 8월 개장하였다. 1층에는 16개 점포의 활어판매장과 2층에는 3개 점포의 식당이 입주하여 대천항 수산물센터와 같이

1층에서 활어를 구입하여 2층 식당에서 회와 식사를 하는 체계로 운영한다.

또한 오천항에는 잠수기수협이 있어 심해에서 잡는 키조개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오천항 부지에 수산물판매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무창포수산물센터



오천항의 수산물판매장

다. 천북굴구이 단지

천북굴은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석굴을 구워먹는 것으로 전국에 명성이 높다. 천북굴은 천북면 장은3리 수문개 마을에서 구워먹기 시작하면서 유래되었다. 현재 천북면 장은리 해변에 굴구이 단지를 조성하여 84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천북굴구이 단지

굴 단지에서는 아린 맛이 없는 12월부터 5월까지 굴구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연중 굴밥과 각종 생선회, 조개, 대하 등 해산물과 각종 젓갈과 건어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민들은 천북굴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을 위해 매년 12월에 굴축제를 연다.

⑤ 농림산물 판매특화

보령 지방은 간척지에서 맛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륙 농산촌에서는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 양송이, 느타리 등 버섯과 취나물, 고사리, 두릅 등 산채 및 밤, 은행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또한 포도, 고구마, 방울토마토, 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농산물판매특화

특히 사현포도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매우 높다. 이들 대부분의 농림산품은 농협과 수집상을 통하여 대도시로 출하하고 있다. 특성상 해산물 처럼 특성화된 판매센터는 없으나 특산물 축제와 대도시나 해수욕장에서 지역 농산물 특별 홍보 판매 행사를 열어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물이라 할 수 있는 보령 쌀 판촉홍보로 농협 대전농산물유통센터 홍보 판촉전(2007.4.27-4.30), 인천 신세계백화점 홍보판촉전(2007.10.18) 등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단체와 기관단체가 참가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매년 도시민들에게 보령의 우수 농림 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성주골 버섯축제, 보령호 청정미산농산물축제, 사현포도축제 등 자체 축제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⑥ E-보령장터 운영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보령의 농·임·축·수산물과 기타 각종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령시에서는 2007년부터 2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2008년 8월말부터 운영한다.

총 89개 업체 및 생산자가 입점하여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품, 공산품, 공예품 등 27개 품목을 취급하는데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메인은 www.brfarm.kr 이며 보령시 e-보령장터농수특산물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

2) 석유 · 가스업

경제수준 향상과 가계 소득 증가로 난방연료가 바뀌었다. 1970년대에는 임산연료에서 연탄으로 전환되었고 1980년대에는 석유보일러가 등장하고 주방에도 LPG 가스렌지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차량 보유가 날로 증가하여 석유판매를 하는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가정용 가스판매업소가 증가하게 되었다.

가스는 가정과 식당의 취사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10kg, 20kg, 50kg들이 용기로 판매 되고 있다. 보령지역은 1972년경에 신흥가스가 처음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현황

연도별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유소	16	44	47	48	51	53	53	58	58	60
석유판매소	36	16	16	17	17	18	18	20	20	20

가스충전소 현황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충전소수	2	2	3	3	4	4	6	6	8

가스판매업소 현황

년도별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17	23	24	24	24	24	25	25	26	28

2. 금융업

1) 은행

(1) KB국민은행 대천지점

국민은행 대천지점은 보령시 대천동 199-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8년 2월 7일부터 운영하여 오다가 2001년 11월에 (구)주택은행과 (구)국민은행이 합병하여 KB국민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지점장과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수신, 여신, 외환, 투신, 방카슈랑스(보험), 복권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다.

여·수신 업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88년도 예금액이 205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1681억 원으로 약 8배 신장되어 우리 지역 경제규모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여·수신 변화

(단위 : 백만 원)

년도별	1988	1989	1990	1991	1992	2007
총수신	20,513	19,278	25,863	30,915	36,097	168,161
총여신	10,165	10,111	11,293	11,691	12,223	154,917

역대 지점장 명단

성명	재임기간	성명	재임기간
김종면	2002. 2. 1~2006. 2. 1	이철연	2006. 2. 1~ 현재

(2) 우리은행 대천지점

우리은행 대천지점은 보령시 동대동 820-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8년 8월 18일 한일은행 대천지점으로 처음 개점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월 상업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이 됨에 따라 2월 27일 한빛은행 대천지점으로 변경 개점하였으며 이후 2005년 5월 1일 우리은행 대천지점으로 변경 개점하게 되었다.

2007년 기준 예수금은 62,533백만 원, 대출금119,413백만 원(누적대출금 181,946백만 원) 규모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지점장외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역대 지점장 명단

성 명	재 임 기 간	성 명	재 임 기 간
장 기 환	1988. 8. 18~1991. 2.25	양 환	1998. 1. 31~1999. 2. 27
양 정 석	1991. 2. 25~1992. 2.26	윤 영 기	1999. 2. 27~2001. 1. 29
권 혁 칠	1992. 2. 26~1994. 2.23	최 종 균	2001. 1. 29~2003. 2. 7
김 승 해	1994. 2. 23~1995. 2.23	박 호 철	2003. 2. 7~2006. 4. 19
김 성 수	1995. 2. 23~1996. 4. 9	탁 병 온	2006. 4. 19~ 현재
김 용 기	1996. 4. 9~1998. 1. 31		

(3) 하나은행 대천지점

하나은행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주)를 설립한 후 1991년 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대천 지점은 1998년 8월 충청은행을 인수한 후 현재의 사무실이 있는 보령시 대천동 328-1 번지에 개점하였다. 주요 업무는 은행, 신탁 판매대행 등 금융서비스를 하며 2007년 말 기준 총수신은 1,007억 원, 총 운용 여신은 520억 원이다.

역대 지점장 명단

성 명	재 임 기 간	성 명	재 임 기 간
정 상 봉	1998.07.29~2000.04.05	이 광 재	2004.08.26~2006.01.03
김 기 팔	2000.04.06~2001.07.07	정 윤 영	2006.01.04~ 현재
민 흥 규	2001.07.08~2004.08.25		

2) 보험회사

(1) 개요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보험제도는 이러한 사고와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협에 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돈을

내어 공동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상호부조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하며, 1762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에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2)보험의 종류와 회사현황

보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나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한 경우의 보험을 인(생명)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으로 분류하나 한 보험회사가 인보험과 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까지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영업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으로 나누어 현황을 게재한다.

① 생명보험

연번	업 체 명	주 소	개 점 일	직 원 수
1	교보생명보험 대보지점	대천 35-11	77.4	지점장, 내근 5,외근40
2	교보생명보험 보령지점	대천 435-11	93.4	지점장, 내근 5,외근20
3	대한생명보험	대천 618-55	82.10.13	소장, 내근2,외근25
4	동양생명 대천지점	동대 820-8	92.3.1	지점장, 내근1,외근45
5	미래에셋생명보험 보령지점	대천 344-12	88.1	지점장, 내근2,외근21
6	신한생명 보령지점	대천 181-15	91.10	지점장, 내근1,외근27
7	알리안츠생명보험 대천지점	대천 202-6	78.2.	지점장, 총무,외근13
8	흥국생명보험 보령지점	동대 820-8	81.10.23	지점장, 내근2,외근25

② 손해보험

연번	업 체 명	주 소	개점일	직 원 수
1	롯데손해보험 보령영업소	동대 810-1	87.12	소장. 외근5
2	동부화재해상보험 서해영업소	동대 476-23	97.10	소장, 내근2,외근50
3	LIG 손해보험 보령사업소	동대 1246	08.6.18	지점장, 내근3
4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천안지점 대천팀	동대 1834	92.4.1	팀장, 내근2외근13
5	삼성화재해상보험 보령사업소	명천 468-1	96.1	소장, 내근2,외근50
6	한화손해보험 대천대리점	대천 168-9	88.8.1	사장, 내근1
7	LIG손해보험 성진대리점	대천 618-9	88.8.1	사장, 내근1
8	제일화재해상보험 보령사업소	동대 1679	88.7.12	소장, 내근6,외근10
9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천영업소	동대 1033	1973.	소장, 내근1,외근35

③ 보증보험

연번	업 체 명	주 소	개 점 일	직 원 수
1	서울보증보험 대천대리점	대천 168-9	90.4.1	사장, 내근1

3) 증권회사

(1) 현대증권 대천지점

1988년 2월 22일 현대증권 대천대리점을 개점하였으며 1989년 11월 6일 보령시 대천동 432-3번지에 현대빌딩을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지점장과 직원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역대 지점장은 아래 표와 같다. 주요 업무로는 자산관리서비스로 CMA, 랩어카운트, 펀드, ELS, 퇴직연금 등을 취급하고 주식 및 선물옵션 중개 및 매매, 기업금융 등 증권 업무와 송금 이체 등 금융 업무를 한다.

역대 지점장 명단

대수	명	재 임 기 간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하재식	1988.2.22 ~ 1989.11.5	4	윤여원	1999.10.18 ~ 2003.3.31
2	김춘호	1989.11.6 ~ 1996.4.20	5	이상복	2003. 4. 1 ~ 2008.7.31
3	박상봉	1996.4.2 1~ 1999.10.17	6	이종우	2008.8.1 ~ 현재

(2)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센터 보령지점

보령시 대천동 618-55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6일 개점하여 유대희 지점장 밑에 차장과 대리 2명,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주식매매, 금융상품 판매, 입·출금 등 증권업을 하고 있다.

4) 새마을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주민협동체인 두레, 품앗이, 향약, 계와 같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보험동 조직의 일환으로 1963년 경부터 태동되었으며, 1973년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보령시 관내 새마을금고는 대천, 웅천, 화은 등 3개 금고가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화은새마을금고와 웅천새마을금고의 합병으로 현재 2개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

(1) 대천새마을금고

보령시 대천동 196-10번지에 위치하며 1980년 10월 30일 보령연합마을금고를 설립하여 12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하고 1981년 8월 26일 보령새마을금고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동년 9월 2일 법인 등기를 하였다. 1982년 4월 22일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 가입하고 1983년 6월 30일 보령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1년 4월 11일 다시 대천새마을 금고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5년 12월 7일 임산새마을금고를 흡수 합병하고, 1995년 11월 10일부터 2001년 12월 17일까지는 동대분소(東垆分所)를 개설, 운영하다가 폐소하였다. 사무소는 새마을운동 보령군지회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1981년 11월 26일 보령시 대천동 331-6번지에 이전하였다가 1985년 2월 15일 대천동197-19번지, 이를 다시 1986년 12월 10일 대천동196-10번지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5월말 현재 회원 3,946명, 일반거래자 3,410명, 자산규모 281억원, 출자금 266억 원이다.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6명, 감사 2명이 있으며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회원으로부터 예적금의 수납과 대출 환전업무 등 신용사업과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기타 연합회나 국가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등을 처리한다. 이사장은 1980년 12월 1일부터 1999년 2월 24일까지(1~6대) 박태수 이사장, 1999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7, 8대) 강신규 현 이사장이다.

(2) 웅천새마을금고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463-3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6월 8일 회원 64명, 출자금 629천원으로 대창새마을금고를 창립하였다. 1990년 12월 31일 새마을금고 연합회로부터 우수금고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2년 5월 23일 금고 명칭을 웅천새마을 금고로 개칭하였다. 2006년 1월 12일 215m² 규모의 자체 회관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4월 20일 화은새마을금고를 합병하여 성주분점을 설치하였다. 2008년 5월말 현재 회원 2,489명, 일반거래자 2,194명, 자산규모 219억 원, 출자금 135억 원이다. 이사장과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적금 등 수신과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역대 이사장은 초대에 백일기(1979.6.8 ~ 2000.1.1)이며, 현재는 주인준(2000.1.1~ 현재)이다.

5) 기타 금융기관

기타 금융업을 취급하는 곳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주로 상인들의 조합 결성에 의거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있다.

(1) 대전상호저축은행 대천지점

충남 보령시 대천동 203-3번지(본점: 대전광역시 선화동)에 위치하며 1974년 12월 26일 충은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여 1998년 8월 29일 동보상호신용금고(보령시 대천동 소재)를 인수하여 충은상호신용금고의 자회사로 대천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였다가 1999년 8월 25일 대천상호신용금고와 충은상호신용금고의 합병 후 충은상호신용금고 대천지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2002년 3월 1일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원은 지점장과 차장, 대리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역대 지점장은 아래 표와 같다.

주요업무는 보통 및 정기 예금과 정기적금 등 수신과 할인어음, 대출 등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역대 지점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이호국	1999.8.25~2000.7.28	3	이호국	2002. 7. 16~2008.1.7
2	김의환	2000.7.29~2002.7.15	4	이부기	2008. 1. 8 ~ 현재

최근 예금변동상황

연 도 별	2005. 6월말	2006. 6월말	2007. 6월말	2008. 6월말
예금액(백만원)	51,743	63,696	66,717	70,741

(2) 대천신용협동조합

1973년 8월 20일 발기 총회를 하여 9월 1일 창립한 후 1974년 3월 19일 당시 재무부의 인가를 받았다. 1998년 3월 7일 명천지점과 1999년 11월 26일 신흑지점, 2007년 12월 4일 동대지점을 각각 설치하였다. 2001년 9월 20일 금융결제원에 가입하고 2007년 말 자산 1,000억 원 돌파, 당기순이익 6억 원 달성, 가입조합원 17,692명으로 전국 1,007개 신협 중 23위, 충남 5위의 안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사장과 이사 7명, 감사 2명이 있으며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예금과 대출 등 금융사업, 공제사업(비영리 보험), 조합원의 신용카드 체크기 무료임대사업, 신협 향군가족제휴 상조서비스,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신협-현대카드 제휴 발급서비스(체크카드 포함), 보령시 4곳의 점포에 20대의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여 입·출금을 하는 365 자동화 코너 운영 등이다.

본점 및 지점 현황

영업점별	소재지	영업점별	비고
본점	보령시 동대동 1687	신흑지점	보령시 신흑동 1848
대천지점	보령시 대천동 185-4	명천지점(무인점포)	보령시 명천동 404-2

역대 이사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정지상	1974.1.29~1975.3.16	10-11	김영웅	1994.2.17~2000.2.25
2-5	황영주	1975.3.16~1984.2.21	12	김광평	2000.2.17~2004.2.17
6-7	박성철	1984.2.21~1988.2.23	13	박진홍	2004.2.18~2006.11.16
8-9	임창재	1988.2.23~1994.2.16	14	강복식	2006.11.17~ 현재

3. 식품접객업(요식업)

1) 식당(일반음식점)

(1) 과거의 식당

과거 농경 위주의 시대에는 식당은 ‘주막’이라 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관공서와 역전 주변 등과 큰길의 길목에 자리하여 막걸리와 국밥을 팔고 숙박업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보령에 근대식 식당이 처음 생긴 것은 1920년대로 당시 선일옥(鮮一屋)이 있었다. 1930년대에는 김독길(金獨吉)이 운영하는 대천옥(大川屋)이 개업하였으며 또한 태평관(전대진 운영)과 대양관(송기수 운영)이라는 요정집이 생겨났고 1940년대 초에 최칠성이 대천옥을 개업하였다.

시대에 따른 차림표의 변화를 1950년대로부터 1990년대까지 운영한 춘천식당(구 대천 역전통 일방통행로와 구시진입도로 교차지점, 현 하나은행 옆에 위치)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는 가락국수, 찜빵 등 분식이 주종을 이루었고, 1960년대에는 만두와 떡국, 1970년대에는 국밥, 1980년대 이후에는 찌개백반이 주종이었다고 한다.

(2) 현재의 식당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음식문화가 발달되었다. 그 이유는 1980년대까지 성주산을 중심으로 주변에 탄광이 많이 있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물 소비시장도 활성화되었으며, 석탄광산 합리화 조치로 폐광될 무렵부터는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등 관광산업이 점차 발달되어 유동 인구의 유입이 많아져 생선회를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음식점 또한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해안과 산·호수·계곡 등이 잘 어울려 전 보령이 관광지라 할 수 있을 만큼 경치가 수려하여 시내지역과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외곽의 촌락이나 계곡 등에도 식도락가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있다.

(3) 한국음식업중앙회 보령시지부 현황

① 연혁

한국 음식중앙회는 국민 영양과 보건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수준 향상은 물론 회원간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함으로써 식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6년 1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를 설치하였다가 1994년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보령지방에는 해방 이후부터 음식점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② 조직

지부장과 부지부장 운영위원 감사가 있으며 근무 직원은 3명이 있다. 조직 내용과 역대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감사	직원
인원(명)	1	2	14	2	3

역대 회장 및 지부장

대수	성 명	재임기간	대수	성 명	재임기간
1	최 칠 성	1945 - 1962	8	최 계 정	1986 - 1991
2	문 한 기	1962 - 1964	9	김 종 건	1991 - 1992
3	유 근	1964 - 1966	10	임 화 태	1992 - 2000
4	이 종 섭	1966 - 1970	11	안 만 수	2000 - 2001
5	김 해 선	1970 - 1980	12	윤 돈 순	2001 - 2004
6	유 덕 근	1980 - 1981	13	조 명 제	2004 - 현재
7	김 태 용	1981 - 1986			

③ 운영 및 주요 임무

지부 운영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며 일반음식점 회원들의 자율지도 및 ‘좋은 식단체’ 추진과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세무신고 대행, 모범 음식점 지정 추천, 각종 음식문화 홍보 등 회원들의 자율 활동을 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음식 요금 안정관리와 만세보령문화제 별미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가

하여 보령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한다.

④ 일반음식점 현황(2008년 현재)

계	한식	일식	양식	중화식	분식	기타
1704	995	124	89	70	127	299

2) 다방업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각종 차와 음료수를 취급한다. 차를 마시면서 사람을 만나 쉬는 곳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옛날 농촌지역의 사랑방이 없어지면서 읍면소재지 공공기관 소재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랑방의 역할을 했으며 전축 등 음향시설을 갖추어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디제이(DJ)가 손님들로부터 음악을 신청 받아 해설과 함께 노래를 들려주는 음악다방도 있었다. 보령지역 최초의 다방은 해방 직후에 개업한 ‘샘다방’이었다고 하며 국민은행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다방에서 취급하는 음료는 다양하나 주로 커피, 녹차, 인삼차 생강차, 쌍화차, 주스, 사이다 등이 있다. 요즘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도 많이 하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전화기 가능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일을 하는 들에 차 배달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볼 수 있다. 요즘은 자판기가 큰 건물, 다중 집합장소 등 곳곳에 설치되어 다방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연도별 다방업소 현황

연도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169	187	191	161	152	156	160	152	165	165

3) 단란주점업

1992년 말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1993년 신설된 업종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이다.

연도별 단란주점업소 현황

연도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23	57	56	52	55	52	49	50	45	45

4) 유흥주점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연도별 유흥주점업소 현황

연도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27	51	55	66	65	80	82	81	82	82

4. 숙박업

1) 과거의 숙박업소

여관은 과거의 주막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주막이 지금의 여관을 대신하였는데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주산장(1,6일) 웅천장(2,7일) 대천장(3,8일) 광천장(4,9) 등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주막에서 밥을 사 먹고 잠을 자는데 숙박비는 무료였다고 한다.

1930년대에 숙박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여관이 생겼는데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보령관(保寧館, 일본명 : 호레이깡, 현 국민은행 자리에 위치)과 삼원(杉原, 일본명: 스키하라)이 최초였으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여관은 대창여관, 북성여관이었다. 그 이후 남양여관, 대일여관, 부여여관 등이 문을 열었다.

2) 숙박업소의 변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는 대개 여관과 여인숙이었다. 이후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개발로 해수욕장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1998년 한화콘도가 개업하고 모텔과 고급여관들이 들어섰다. 2007년에는 대천해수욕장에 편비치호텔이, 2008년에는 무창포해수욕장에 비체펠리스콘도가 개업하였다.

또한 시내지역에도 동대지구 구획정리 지역에 고급여관들이 많이 건축되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숙박업소가 고급화 대형화 되었으며 여인숙은 주로 구 시가지에 일부 남아 있다.

숙박업소 현황

구 분	계	호텔	콘도	여관	여인숙
2008년	215	1	2	174	38
1993년	179			89	90

3) 숙박업중앙회 보령시지부

(1) 연혁 및 활동

1966년 4월 23일 숙박업소 대표자를 회원으로하여 지부를 설립하여 자율적 조직으로 운영하여 왔다. 지부장을 오래 역임한 바 있는 남성만 웅(현재 대천동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숙박업소도 많지 않고 참여도 저조하여 지부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요즘과 달리 투숙객에 대한 경찰의 불시 검문검색(일명 ‘임검’)이 자주 있어 지부장에게 업소 보호대책을 호소하고 항의하기도 하여 지부장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 지부의 체계가 잡히고 지부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지부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숙박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율지도원을 구성하여 연 2회 위생상황 등에 대한 업소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미비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숙박영업자 권익보호 및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한다.

(2) 조직 및 운영

숙박업중앙회 보령시지부 조직

구분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	사무국장	이사	총회원
인원	1	2	1	1	15	215

역대 지부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김 흥 현	1966년~1969년	6	강 신 화	1994년~1996년
2	황 진 성	1970년~1971년	7	전 중 국	1997년~2002년
3	신 재 희	1972년	8	최 병 선	2003년~2007년
4	임 의 순	1973년~1974년	9	임 규 정	2008년~ 현재
5	남 성 만	1975년~1993년			

5. 이 · 미용업

1) 이용업

(1) 과거의 이용업

이용업은 일제시대부터 자격증제도로 정착되었으며, 이용사들은 일제의 명을 받아 우리의 옛 풍속인 상투를 직접 잘라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발기계(일명 바리깡)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전반까지는 대부분 양손으로 사용하는 기계였다가 그 이후에는 한손으로 사용하는 기계로 머리를 깎고 2000년 무렵부터는 전기에 의한 기계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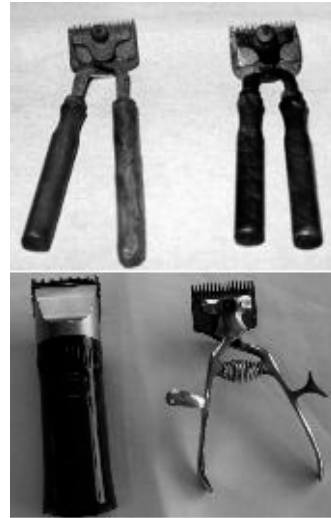
시골에서는 어머니들이 바느질용 가위로 머리를 깎아 주어 일명 ‘발두둑 머리’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머리를 쥐가 파먹었다.’ 고 놀리기도 했다. 또한 두 손으로 사용하는 이발기구로 이발하던 시절에는 기계에 머리카락이 물려 눈물을 찢끔거리고 아픔을 참아가며 이발을 하기도 했다.

명칭도 이발소, 이발관, 이용원, 이용소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추석과 설 등 명절이 되면 아무리 궁핍해도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명절을 맞는 풍습이 있었으며 ‘명절에 단정하게 이발을 하지 않으면 차례를 못 지낸다.’ 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명절 일주일쯤 전에는 이발소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면도와 이발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긴급 고용하여 밤 늦도록 이발을 해주어 명절을 편히 셀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요즘과는 대조적이다.

(2) 이용업소 현황

예전에는 남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 것으로 알았으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미용실을 이용한다. 실제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표의 이용업소 현황과 다음의 미용업소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새로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이용업소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발기계

이용업소 현황

연도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소수	135	127	120	95	95	91	83	76	76	73

(3) 한국이용사회 보령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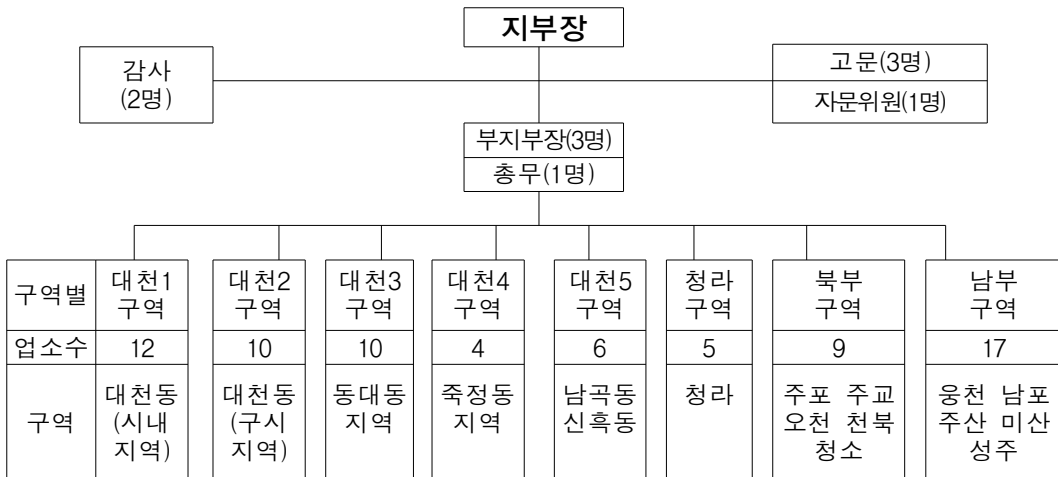
① 연혁 및 운영

1946년에 한국이용사회 총 연합회가 중앙단위로 처음 결성되었고 1961년 9월 12일 사단법인 한국환경위생연합회 이용분과 위원회에 속하였다. 이후 1966년 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충남도지부가 결성되어 보령지역도 이에 속하였으며, 1970년 9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업 중앙회 충남도지부, 1972년 11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 충남도지부였다가 1980년 10월 28일 해산하고, 198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대한이미용사회 창립으로 충남이미용지회로 창립한 후 1982년 10월 28일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로 되었다.

이용업주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원 간 친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위생교육과 자율지도 활동, 무료이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역별 구역제로 운영하고 임원은 지부장을 포함 21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연 1회 총회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두 달마다 갖는다.

이용업지부 조직도



(자료 : 한국이용사회 보령시지부)

② 역대지부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이춘영	1946년~1952년	5	홍훈길	1987년~2001년
2	남승희	1953년~1965년	6	박종만	2002년~2004년
3	정준복	1966년~1977년	7	홍훈길	2005년~2007년
4	이하복	1978년~1986년	8	강영희	2008년~ 현재

2) 미용업

(1) 현황

우리 지역의 미용실의 역사는 이발소보다 짧다. 옛날 여인들은 대부분 처녀 시절은 단발머리 또는 길게 길러 땡기로 묶거나 따는 머리를 하고, 결혼 후에는 곱게 빗어 비녀를 꽂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비녀를 꽂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파마머리가 대부분이다. 미용업소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때 줄어들기도 했으나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남자들도 미용실을 선호하여 업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발소와 달리 한 업소에 업주 이외로 미용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연도별 미용업소 현황

연도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소수	113	150	94	104	110	118	125	135	145	161

(3) 대한미용사회 보령시지부

① 연혁 및 주요 임무

1982년 12월 13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득(보 허841호, 보건사회부장관)하여 당시 임관분 초대 회장의 주선으로 1985년 4월 각 미용업주를 회원으로 최초 결성하였다.

2000년 3월 24일 보령시 대천동 420-1에 지부사무실을 개소하고 2004년 10월 12일 대천동 202-2번지(3층)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조직의 활성화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들의 권익보호, 조직 강화 및 지도감독, 홍보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한다.

자체로 준법정신 준수, 국민보건 향상, 공중위생 실천, 참신한 미용기술개발, 미용질서 확립 등을 내용으로 미용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회원 자율실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조직 및 운영

조직은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지역을 6개 구역으로, 그 외는 읍면동 단위로 구역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2명, 상무위원 7명, 감사 2명과 사무장 등 13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회의는 연 1회 총회(4월중)와 월례회가 있으며 안건이 있을 시는 임시회, 이사회를 갖는다.

가. 구역 편성(157개소)

구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업소수	27개소	22개소	9개소	12개소	25개소	23개소			
구역	대천동 (국민은행통)	대천동 (하나은행통)	현대상가 주변	죽정동	명천동 동대동	대천동 (구역전통)			
궁촌	신희(육장,어항)	성주	웅천	주산	주교	청소	천북	오천	청라(의평)
3개소	4개소	3개소	17개소	4개소	2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자료 : 대한미용사회 보령시지부)

나. 역대 지부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임관분	1985년~1988년	6~7	박종욱	2001년~2006년
2~3	신무자	1989년~1994년	8	이정욱	2007년~ 현재
4~5	이복동	1995년~2000년			

6. 세탁업

1) 현황

연도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22	49	24	67	70	70	71

2) 세탁업 보령시지부

세탁업주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연 1회 자체 지도 점검을 하고 도지회와 합동으로 자체 위생검열을 연 1회 한다. 지부장을 포함 5명의 임원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연 1회 12월 중에 총회를 하며, 월례회를 두달마다 개최하고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한다.

역대 지부장 명단

대수	성명	재임기간	대수	성명	재임기간
1	이경우	1996년~1997년	4	권봉식	2002년~2005년
2	조남수	1998년~1999년	5	김두한	2006년~2007년
3	강홍구	2000년~2001년	6	강홍구	2008년~ 현재

7. 목욕업

1) 현황

목욕시설은 각 가정에도 있기 때문에 목욕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며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목욕업의 특성상 유가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은 찜질방을 겸한 새로운 형태의 목욕업도 증가 추세에 있다.

목욕업소 현황

년도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업소수	11	14	11	15	20	22	24

2) 목욕업 보령시지부

10여 년 전부터 지부 구성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정관이나 회칙이 없이 지부장과 사무장을 두고 회원들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4년까지는 이종현 지부장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김봉선 지부장이 맡고 있다.